

CBMC 미주한인 CBMC 월간 뉴스레터 NEWSLETTER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당신을
'일터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8월 9월 소식을 못 전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10월호에 함께 전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실업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8월 15~18일 제12차 CBMC 세계대회 및 제49차 CBMC 한국대회 개막



지난 8월 15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36개국에 온 2,400여 명의 기독 실업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4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CBMC 세계대회 2023(CBMC World Convention 2023)이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경기도 파주 오산리기도원과 영산수련원에서 진행 하였으며, 제12차 CBMC 세계대회이자 제49차 CBMC 한국대회로 열린 이번 대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Unity In Christ)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 CBMC 회원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 각 나라의 CBMC 사역 아이디어를 서로 소개하고 권면하여 크리스천 비즈니스 리더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킹덤컴퍼니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재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의 제78주년 광복절인 8월 15일 오산리기도원 대성전에서는 세계대회 준비부위원장 전용수 한국CBMC 부회장의 사회로 오프닝 콘서트 격인 ‘한반도 복음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음악회’가 성대하게 거행됐다. 100여 명의 연주자와 250여 명의 합창단이 참여한 W 필하모닉의 오케스트라(감독 김남윤) 공연, 아달(Adahl)의 특별 초청 공연 등이 약 90분간 이어지며 개회식을 앞두고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W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를 작곡해 세계 초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개회식은 CBMC 세계대회 2023 대회장인 김영구 한국CBMC 중앙회장과 크리스 심슨 국제CBMC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각국 기수단 입장과 주제 찬양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만남을’을 함께 부른 후 새이레기독교학교 CCD팀의 특별 공연, 대만 출신 웨이왕 첸 아시아태평양 CBMC 이사장의 개회기도, 장로찬양단 코랄카리스의 특별 찬양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구 대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하나님께서서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며 “이 대회를 통해 모든 회원의 일터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고, 전 세계 CBMC 회원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영구 대회장은 “한국은 유일하게 세계대회를 세 번째 개최하는 국제회원국”이라며 “모든 CBMC 회원이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은혜 충만하여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전 11:1)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 세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차례

제12차 CBMC 세계대회	1쪽 - 6쪽
지회탐방 - 부에나팍	7쪽
장학금 수여식	7쪽
북가주 연합회 피크닉	8쪽 - 9쪽
트라이밸리 지회 워크숍.	10쪽
샌프란시스코 지회 워크숍	11쪽
사역지 방문 - 안신기 목사	12쪽
선교소식 - 최승암, 박주리	13쪽
콩팄의 신비 - 임봉대 목사	14쪽
땅끝향기 - 조수현	15쪽
광고	16쪽-17쪽
- 서부대회 및 리더쉽 스쿨	
- 북가주 연합회 송년모임	
-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 서부총연 조직도	
총회 및 모임 안내	18쪽

세계 기독교실업인들, 예수 안에서 하나의 사명·사역 확인하고 세상 속으로!

CBMC 세계대회 2023 폐막... 차기 대회는 2027년 인도서 개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경기 파주 오산리 기도원과 영산 수련원에서 개최된 제12차 CBMC 세계대회 및 제49차 CBMC 한국대회가 폐막했다. 팬데믹으로 예정보다 1년 연기돼 5년 만에 열린 이번 ‘CBMC 세계대회 2023’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터사역을 위한 하나의 사명과 비전, 하나의 사역을 재확인하고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연합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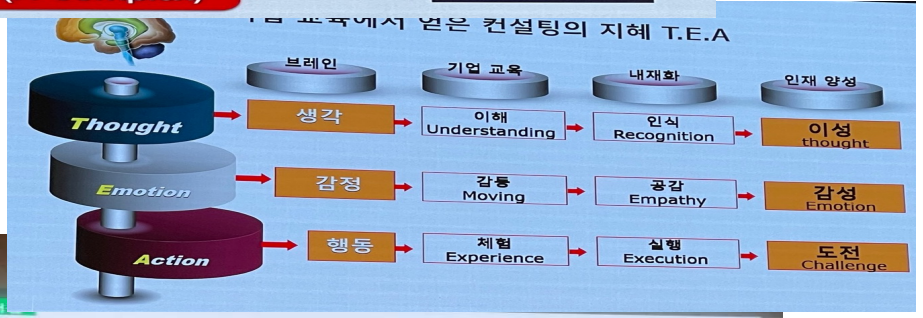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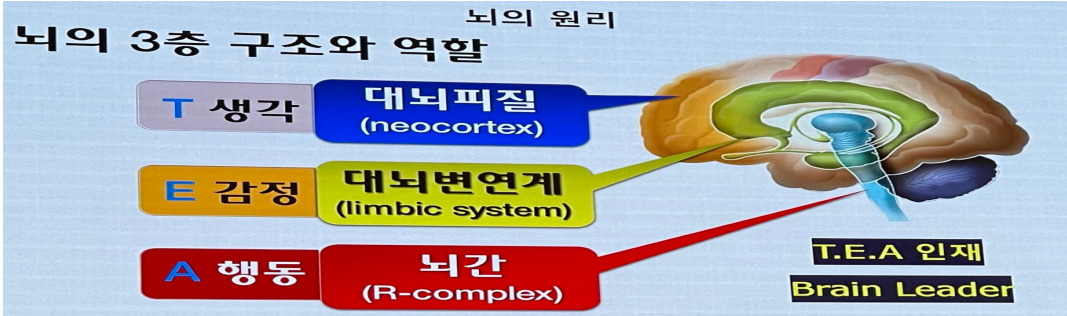


개회 직전에 대회에 참석한 외국 CBMC 회원들이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고 있다.

제49차 한국대회 및 제12차 세계대회 후기 - 미주서부 총연 - 강승태 총회장
CBMC 일터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고 연합되는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대회였습니다. 한국 국내는 물론 아시아 대륙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사역하는 모습에 강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프닝 통일 기도 음악회에 깊은 감동이 있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규모와 섬김이 돋보였습니다. 귀한 강연 및 간증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송정미 찬양인도자의 영성과 파워풀한 찬양이 좋았으며 오산리 기도원의 웅장함에 놀랐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식사가(해외 참석자) 원활 했으며 영상, 조명, 사운드 등 전체적으로 훌륭한 대회였습니다. 이와 반면에 숙박과 대회장간의 이동, 그리고 대회장 내의 이동 또한 다소 불편했으며 여유 시간이 적어 지회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이 아쉬웠습니다. 세계대회를 함께 치루느라 수고하신 김영구 중앙회장님과 모든 준비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리더십 (Leadership of Facilita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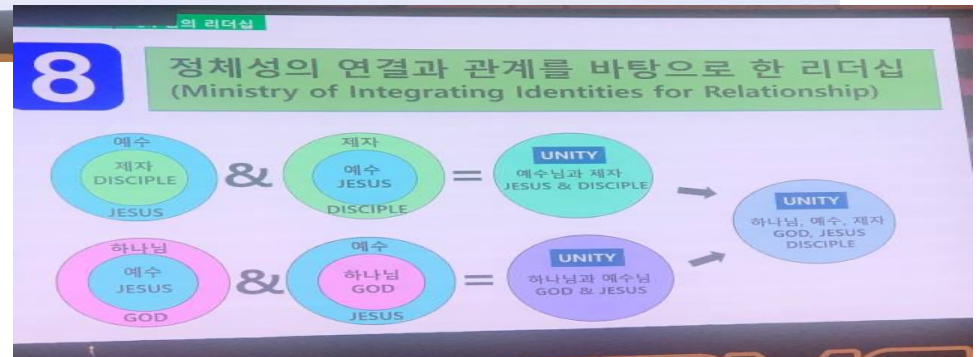
OUR PROBLEM

US	OUR PROBLEM	GOD'S REMEDY	GOD
1	죄 Sin	회개 Repentance	영생 Eternal life
2	죽음 Death	복음 Gospel	영생 Eternal life
3	파괴 Destruction	구원 Salvation	영생 Eternal life
4	죄 Sin	회개 Repentance	영생 Eternal life
5	죽음 Death	복음 Gospel	영생 Eternal life
6	파괴 Destruction	구원 Salvation	영생 Eternal life

3 keys to effective facilitation

- 비유** (Metaphor): Connecting with the heart
- 요약** (Summary): Making it easy to understand
- 질문** (Questioning): Encouraging participation and reflection

CONNECTING WITH GOD
하나님과의 연결



- 개미는 특정한 명령자가 없다 - 각자 알아서 한다
- 개미는 미리 계획을 세운다 - 미래를 준비한다
- 개미는 항상 긍정적이다 -- 불가능은 없다고 믿는다
- 개미는 포기하지 않는다 - 될 때까지 노력한다
- 개미는 협업한다 - 다함께 큰일을 해 낸다

CBMG



부에나팍 8/23/23

이곳 부에나 팍 지회 소식 전합니다.
 어제 8월 3째주 만나 모임을 대면으로 모였습니다.
 섬기려 이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는 리더쉽"에 대해 더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귀한 말씀나눔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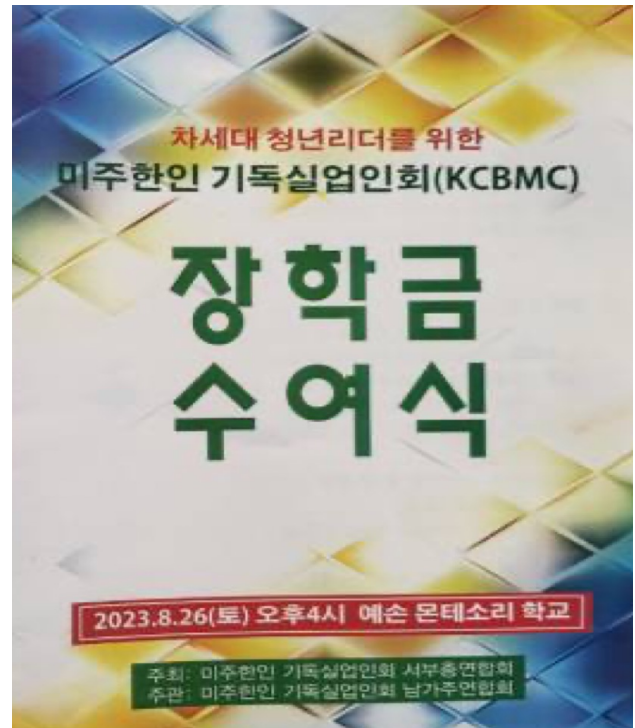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이하KCBMC)서부총연합회가 주최하고 KCBMC남가주연합회가 주관한 제2회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8월 26일(토) 오후4시 예손 몬테소리학교(최혜나 원장)에서 열렸다.

오현근 부회장(남가주연합회) 사회로 열린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1부 예배 2부 장학금 수여식의 순서로 진행 되었다. 1부 예배에서 장학위원장 안신기 목사가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안신기 목사는 설교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상식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서 선을 심고 생명을 심는 일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안신기 목사는 이어 인사말씀에서 "바쁜 경영일선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원리를 통해 기업을 경영하고 일터를 복음화하는 기독실업인들을 격려하고 경영인들이 차세대를 격려하고 리더를 세우는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장학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강승태 회장(KCBMC 서부총연합회 총회장)은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후배를 위해 받은 사랑을 나누는 리더가 되라"고 축사했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Joshua 전도사는 "장학금을 허락하신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다고 전하며 차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일꾼을 키워가는 가교가 되겠다"고 답사했다. 이외에도 황선철 직전 총회장의 축사, 제임스 하 사장(가든그로브지회), 신용 회장(OC 기독교전도연합회)이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황에스더 목사의 축가가 있었으며 김영대 목사(연목회 이사장)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 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Lauren Ahn, △Chong Lim, △David Shin, △Eunsung Chu, △Johnson Lee, △Joshua Suh, △Ryle y park, △Samuel Kim, △Sungmin Kim 등 총 9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한편 기독실업인회(CBMC)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하라'는 비전으로 일터선교를 하는 크리스천 경영인들의 모임이다.



북가주 CBMC 연합 피크닉

2023년 9월 2일

미주서부 북가주 CBMC 연합회(회장 계용식)는 지난 9월2일 케스트로 밸리 샤보트파크 (Chabot Park) 에서 연례 피크닉을 가졌다.

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손대운)가 주관한 이번 모임은 백종한 총무의 사회로 시작하여 홍성준 목사의 찬양 인도에 이어 최계영 새크라멘토 지회장의 기도로 시작했다. 김이수 산타클라라 지도목사는 '너 복있는 사람아'(시 121:1-8)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계용식 연합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강승태 총회장은 축사와 함께 임종숙, 김성민 학생에게 차세대 청년 장학금을 수여했다.

정숙희씨와 박선주씨의 간증에 이어 임봉대 지도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손대운 회장의 광고와 홍성준 목사의 오찬 감사기도 후에 풍성한 음식을 나누었다. 박성희, 이광용씨의 인도에 따라 각 지회원들 소개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홍성준 목사가 직접 작사 작곡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찬양을 다함께 부르고 폐회기도로 마쳤다.

이날 참석한 북가주 지회는 샌프란시스코지회(회장 손대운), 트라이밸리지회(회장 박성희), 새크라멘토지회(회장 최계영), 산타클라라지회(회장 실비아리), SFDT지회(부회장 박래일)에서 60여명이 참석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CBMC”

**북가주 CBMC
연함 파크니**

2023

- 날짜: 2023년 9월2일(토)
- 시간: 오후11시
- 장소: Chabot Park
19088 Estabro Ave, San Leandro, CA 94571

• 주 회: 북가주 CBMC 북가주 연합회 (주요 개음회)
 • 주 관: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회 (주요 순회)
 • 주 회: 북가주 CBMC 총연합회 (주요 강사)
 • 주 회: 로잔아일랜드 지회, 세브라시온 지회, 샌인폴라 지회, SFOTI 지, TRACY 지
 • 주 회: CBMC 직원: 카리스마 세계에 화신! 내가 알려줘!
 • 주 회: CBMC 직원: 신앙인과 전문인들에게 특화된 웨스프라이드 구조어설을 통해
 • 주 회: CBMC 직원: 신앙인과 전문인들에게 특화된 웨스프라이드 구조어설을 통해

2부 축복의 시간

북가주 CBMC 연합회(주회)

안양 최기영 목사 (주요 강사)
 기도 최기영 목사 (주요 강사)
 말씀 김아수 목사 (주요 강사)

사편121:1-8 “너 복있는 사람아”
 내가 너를 위하여 손을 올리며 나의 소망을 너에게 쏟아
 기어 도울은 천사를 지니고 이르러서 너를 위하여 기도
 내가 너를 위하여 손을 올리며 나의 소망을 너에게 쏟아
 기어 도울은 천사를 지니고 이르러서 너를 위하여 기도
 내가 너를 위하여 손을 올리며 나의 소망을 너에게 쏟아
 기어 도울은 천사를 지니고 이르러서 너를 위하여 기도

2부 축복의 시간

안양 최기영 목사 (주요 강사)
 기도 최기영 목사 (주요 강사)
 말씀 김아수 목사 (주요 강사)

사편121:1-8 “너 복있는 사람아”
 내가 너를 위하여 손을 올리며 나의 소망을 너에게 쏟아
 기어 도울은 천사를 지니고 이르러서 너를 위하여 기도
 내가 너를 위하여 손을 올리며 나의 소망을 너에게 쏟아
 기어 도울은 천사를 지니고 이르러서 너를 위하여 기도
 내가 너를 위하여 손을 올리며 나의 소망을 너에게 쏟아
 기어 도울은 천사를 지니고 이르러서 너를 위하여 기도



미주서부총연 북가주 트라이밸리 지회 워크숍 및 VIP 초청의 날

트라이밸리 지회(지회장 박성희)는 9월9일 대면 모임 겸 회원배가를 목적으로 작은 세미나를 가졌다. 이광용 부회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워크숍은 김이수목사의 기도와 CBMC소개 동영상 시청을 한후 강승태 총회장의 '2% 부족한 믿음생활' 간증과 서부총연 소개가 있었다. 정숙희 회원의

'내가 만난 CBMC' 간증에 이어 최승암 지도목사는 '목사가 본 CBMC' 간증과 만나를 통한 일터사역자들의 성숙된 모습에 은혜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성희 회장과 정숙희 회원이 준비한 풍성한 음식으로 사랑의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 이날 특별 초청된 3분의 VIP와 SF지회서 파송한 한분을 포함한 네분이 정회원으로 한 지체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역할것을 다짐했다

CBMC Connecting Business & Marketplace to Christ

9월의 특별한 초대
내가 찾던 2% 믿음 생활

새로운 레벨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된
CBMC 회원들이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9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
5990 STONERIDGE DR STE #118
PLEASANTON CA 94588

KCBMCUSAWEST
미주서부기독교실업인총연합회



샌프란시스코 CBMC 총동원 워크숍 및 VIP 초청의 날

2023년 10월 15일(주일)

오후 5시 30분

Lara's Fine Dining

1900 Esplanade Dr., Richmond, CA 94804

샌프란시스코 CBMC(회장 손대운)는 지난 10월 15일, 최윤정 부회장 운영 'Lara's Fine Dining' 레스토랑에서 '회원 총동원 워크숍 및 VIP 초청의 날'로 모임을 가졌다. 백종한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모임은 손대운 회장의 기도와 회원소개가 있었으며 CBMC 소개 동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이어서 최윤정 부회장은 CBMC 비전과 사명을 설명하고 계용식 북가주 연합회 회장과 강승태 서부총연합회 회장은 각각 조직의 구성을 소개했다. 정진영 사장과 오미자 사장은 CBMC와 일터사역에서의 유익과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었다. 임봉대 지도목사는 VIP로 초청된 다섯분의 영입을 환영하며 동역을 위하여 축복기도를 했다. 식사와 친교를 하면서 최윤정 부회장 생일을 위해 최승암 트라이밸리 지도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사역지 방문



남가주 부에나팍지회(회장 최혜나)는 지난 10월21일 안신기 목사님이 시무하는 베이커스필드에 위치한 가주목양교회를 방문하고 감사 예배와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안신기 목사는 부에나팍 지회 지도목사로 창립때부터 이날까지 섬기고 있다. 교회 방문에 동행한 회원은 황선철 서부총연 직전회장을 비롯하여 이원표회장, 제니퍼 권 권사, 빌리민 부회장, 최순길 목사, 최혜나 (순자)회장 등이다. 함께 동행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승암 박주리 선교사 선교소식 (2023년 10월)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자 지구 (Gaza Strip)'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전쟁이 중동을 감싸고 있습니다. 2차 대전과 월남전이 끝나면서 인류는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쟁 없는 평화 시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주 역사학자 블레이니 (Geoffrey Blainey)는 평화 없는 전쟁 상태가 오히려 정상이라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시대(미 4:3)'가 도래하길 기도합니다.



말씀 나눔과 선교 도전

선교부에서 가까운 트레이시 제일 교회에서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미션 퍼스펙티브스 (MP) 강의에 이어 말씀 선포를 통해 선교에 대한 비전과 도전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매 주 줌(zoom) 모임, 매월 1회 대면으로 진행되는 기독 실업인 말씀 공부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방을 품는 찬양, 열방을 향한 복음

매 주 한번씩 찬양하며 선교를 지원하는 합창모임이 있습니다. 선교 동원을 위해 단원의 한 사람으로 열방을 향해 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열방의 선교 현장을 지원하고 선교 자원을 동원하는 목적을 위해 찬양의 밤을 엽니다. 다양한 열방 언어에서 찬양의 화음이 터지는 그 때까지 우리의 열정과 사모함이 모아져야겠습니다.

박주리 선교사 건강 회복은 일상가운데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여년 만에 산(山) 만한 아들 수발하며 벅찬 보람과 자녀 양육(?) 기쁨을 체감하는듯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찬이는 대학원 후, 수학을 지도하는 일로 OPT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순적히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손녀를 품은 아들내외는 새로운 동지로 이사해 행복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찬양의 밤

2023. 10. 21 (토) 오후 5시
뉴라이프 교회

콩팥(腎臟)의 신비

임봉대 목사 (샌프란시스코 CBMC)

신장(腎臟)이란 인간의 허리 양쪽에 있는 하나씩 있는 콩팥으로 몸 속에 흐르는 피와 수분을 걸러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콩팥이 없다면 즉시 암모니아 중독에 걸려 죽게 된다. 독일에서 목회할 때 한 젊은이와 기도했던 적이 있다. 그는 형님에게 자기의 콩팥 하나를 떼어주는 신장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 귀국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경에 '콩팥'은 히브리원어로 '켈라웃트'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콩팥'을 '장부'(개역), '오장육부', '창자'(공동번역)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콩팥'은 아주 예민하여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이 신장결석으로 인해 돌이 콩팥의 관을 통과할 때라고 한다. 허리 양쪽에 있는 콩팥이 아프면 허리 전체가 고통스럽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콩팥의 아픔에 비유하고 있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욥 16:13)

현대 심신의학에서는 콩팥과 같이 내장 가운데 짝을 이루고 있는 장기들은 특별히 파트너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충돌에 아주 예민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욥이 콩팥의 통증을 통해 울부짖는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파트너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절망감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탄식한 예레미야도 애가에서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과녁으로 삼으심이여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애 3:12-13)라고 부르짖었는데, 여기서 '허리'는 히브리원어로 '콩팥'이다.

욕이나 예레미야가 당하는 콩팥의 고통은 신장결석이라는 병 때문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요 구원자라고 믿었던 하나님이 오히려 적이 되어 버렸다는 관계단절에 관한 처절한 절망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이듯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실 때 콩팥을 이용하신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콩팥)과 내 양심(심장)을 단련하소서”(시26:2)

땅끝향기

인생 김치

조수현

볶음밥 나시고랭, 볶음국수 미고랭, 꼬치 사뎀, 고깃국 소또..... 인도네시아 음식은 맛있었다. 매콤한 소스 삼발과 함께 먹으면 더 입맛을 돋웠다. 망고와 파파야도 먹어보며 인도네시아에서의 처음 몇 주를 여행객의 마음으로 보냈다. 시간이 지나가며 파송식의 감격도 잡은 손의 온기도 캠프파이어의 불씨처럼 사그라들고 있었다. 낯선 나라에서 말이 통하는 건 달랑 우리 세 식구. 여행객과 같은 흥분도 가라앉고, 이국적인 음식도 슬슬 표정 없는 얼굴로 대할 때 몸살감기를 앓으며 피곤함이 몰려왔다. 열대기후와 새로운 환경에 몸이었다. 뜬금없이 사람들이 둘째 임신을 축하한다는 것이었다. 난 속으로 '지금 임신하는 게 과연 축하 받을 일이야?' 하며 의아해하다 잠이 깼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챙겨온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다. 선명한 두 줄이 보였다.


바로 입덧을 하기 시작했다. 두리안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돌아오는 날이 반복되었다. 배를 손으로 꼭 감싸 안고 덜컥거리는 버스에 몸을 싣고 학교에 가서 인도네시아어 공부도 하였다. 입덧은 눈치 없이 계속되었고 모든 음식이 말할 수 없이 느끼하였다. 느긋거리는 속을 한 번에 잡아줄 김치생각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몰랐다.

김치통에서 막 꺼낸 시원하고 아삭한 김치를 쭈욱 찢어서 입에 가져가는 상상이 되풀이되었다. 빨간 고춧가루를 묻혀도 상관없다. 매콤 새콤한 각두기를 아작아작 씹어 먹는 상상도 더불어 등장하였다. 똑같은 상상은 늘 가득 고인 침을 꼴깍 삼키며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는 듯한 아쉬움을 남겼다. 김치만 먹으면 해결될 것 같은 열망이 생기자 김치 못 먹는 한이 맺힐 지경이었다. 현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인들은 마치 UFO 같았다.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봤다고 하였다.

선교사들의 기도는 영혼 구원이나 영적 전쟁같이 차원 높은 기도라 여겼는데, 김치를 위해 기도할 줄이야. 그날은 작정하고 아침부터 무릎 꿇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제발 김치 좀 주세요." 난 결연한 표정으로 한껏 진심을 담아 너무나 반가워 김치, 임신 등등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분은 급한 일이 있다며, 전화번호만 받아 황급히 떠나셨다. 매우 아쉬웠다. 같은 날 저녁, 집 전화가 울렸다. 낮에 가게에서 처음 만난 한국인이었다. "기도하고 자려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김치 좀 가져다 주라는 것 같아서요. 아까 그 가게로 나오시면 드리고 편하게 잘게요."

나는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급히 그 가게로 뛰어갔다. 붉게 물든 노을이 김치국물 색깔 같았다. 아름다웠다. 그분이 양손에 김치통을 들고 오는 모습이 보였다. 한 손엔 배추김치, 다른 한 손엔 각두기. 눈물이 앞을 가렸다. 김치 좀 달라는 딸의 기도에 해가 저물기 전에 응답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김치는 말 그대로 인생 김치였다. 하나님은 김치를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를 즐겨하셨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후하게 김치를 주신 그분의 순종이 내채워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이 차곡차곡 쌓여 나나만의 역사가 되었다. 오늘도 김치는 무척 맛이 있고 소박한 밥상도 만족하게 만든다. 늘 새롭고 충분한 주님의 은혜와 답이 있다.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익어 있는 맛이다.



북가주 연합회 송년 모임

언제 : 2023년 12월 14일 (목) 오후 5시

어디서 : 오가네

3915 Broadway
Oakland, CA 94611

회비 : 일인당 \$80



제2회 서부대회 및 리더쉽 스쿨

언제 : 2024년 4월 25일~27일

어디서 :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최 : 미주한인기독실업인서부총연합회

우리지회 월간 스토리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연합회장님, 지회장님과 총무님!
지난 한 달간 지회모임을 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귀한 사역의 이야기
- 회원 동정 (사업확장, 개업, 조경사)등

귀담아 듣겠습니다. 😊



미주한인기독실업인서부총연합회

총회장 - 강승태

직전 회장 : 황선철
 상임 고문 : 모종태
 신승수
 염창섭

사무국장 : 박성희
 재무 : 린 최
 서기 : 데브라 홍
 감사 : 최종원, 성주형

부회장 - 오윤호
 서북부 연합회 회장

부회장 - 윤여민

시애틀 지회
 (지회장 : 오윤호)
 페더럴웨이 지회
 (지회장 : 박상규)
 하와이 지회
 (지회장 : 윤여민)

부회장 - 이봉우
 남가주 연합회 회장

남가주 지회
 (지회장 : 송종보)
 코리아타운 지회
 (지회장 : 오현근)
 부에나팍 지회
 (지회장 : 스티븐 최)
 가든그로브 지회
 (지회장 : 민 김)

부회장 - 계용식
 북가주 연합회 회장

샌프란시스코 지회
 (지회장 : 손대운)
 새크라멘토 지회
 (지회장 : 최계영)
 트라이밸리 지회
 (지회장 : 박성희)
 산타클라라 지회
 (지회장 : 실비아 리)
 SFDT 지회
 (부회장 : 박래일)
 트레이시 예비 지회
 (지회장 : 허정무)

CBMC (기독교실업인회) 목적

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기독교실업인들과 전문직업인들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다. (마태복음 28 : 18-20, 사도행전 1 : 8)

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 서부총연합회 (KCBMCUSA)

2023 주제 :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전 11:1)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목표 : 성경적 경영과 섬김의 리더쉽 **표어 :** 100개 지회 (재) 창립 역량강화 일터복음사명

CBMC <Connecting Business & Marketing to Christ>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실업인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CBMC는 1930년 미국에서 태동했으며, 기독교실업인 (사업가)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현재 전 세계 96개국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사명공동체입니다.

한국CBMC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국내 273개 지회, 해외 130개 지회가 있으며 7천5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주지역 한인들의 기독교실업인회는 1975년 남가주에서 출발했습니다. 2019년 1월25일 창립된 미주한인 CBMC 서부총회는 2020년 1월 25일 서부총회 명칭을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 총회 (KCBMCUSA), 2022년 10월 18일 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 서부총연합회 (KCBMCUSA)로 변경했습니다. 총연은 서북부 연합회 (워싱턴, 오레곤, 알래스카주와 밴쿠버, 하와이), 북가주 연합회, 남가주 연합회 3개 연합회의 각 소속 지회로 구성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CBMC 연합회 지회 모임 안내 : COVID-19 사태로 비대면 ZOOM 화상 / 대면 회의 및 기도회

<p>남가주 CBMC 연합회 (연합회장 이봉우)</p> <p>남가주 지회 (회장 : 송종보)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코리아타운 지회 (회장 : 오현근)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부에나팍 지회 (회장 : 최순자)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30</p>	<p>가든 그로브 지회 (회장 : 민 김)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북가주 CBMC 연합회 (연합회장 계용식)</p> <p>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 손대운) 모임 : 매주 정례 (금) / 줌 *시간 : 오전 7:00</p> <p>새크라멘토 지회 (회장 : 최계영)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전 6:30</p>	<p>트라이밸리 지회 (회장 : 박성희)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산타클라라 지회 (회장 : 실비아 리)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p>SF 다운타운지회 (부회장 : 박래일)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p>트레이시 예비 지회 (회장 : 허정무) 모임 : 주별 비정례</p>	<p>서북부 연합회 (연합회장 오윤호)</p> <p>시애틀 지회 (회장 : 오윤호)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페더럴웨이 지회 (회장 : 박상규) 모임 : 주별 비정례</p> <p>하와이 지회 (회장 : 윤여민)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	---	---	---